



차이나

CHINA Market Watch

마켓 워치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2026 글로벌 유니콘 기업 명단'에 중국 기업 381개 사 선정

■ '중국판 포브스'라 불리는 후룬(胡润)연구원은 6월 25일 광저우시에서 '2026 글로벌 유니콘 기업 명단(Global Unicorn Index 2026)'을 발표

- 중국의 유니콘 기업은 381개 사로 전년보다 38개 사 증가하였고, 신규 선정된 기업은 로봇·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에 집중된 가운데 신에너지·항공우주 분야 기업도 다수 포함됨
- *전 세계 52개 국가(지역)의 총 1,603개 유니콘 기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신규 유니콘 기업은 308개 사로 집계
- 도시별 유니콘 기업 수는 베이징시(86개 사)가 가장 많았고, 상하이시(74개 사), 선전시(44개 사), 항저우시(25개 사), 광저우시(24개 사)가 그 뒤를 이었음

〈중국 10대 유니콘 기업〉

순위	기업명	로고	설립연도	업종	기업가치 (억 위안)	전년 대비 기업가치 변화 (억 위안)	소재지
1	바이트댄스(ByteDance)		2012	미디어·엔터테인먼트	32,600	12,240	베이징
2	앤티그룹(Ant Group)		2014	핀테크	5,920	0	항저우
3	쉬인(SHEIN)		2012	전자상거래	4,560	1,160	광저우
4	샤오홍수(小红书)		2013	미디어·엔터테인먼트	3,400	1,630	상하이
	딥시크(DeepSeek)		2023	인공지능(AI)	3,400	신규 선정	항저우
6	DJI		2006	로봇	2,500	1,730	선전
7	OPPO		2004	전자제품	2,250	540	둥관
	위뱅크(WeBank)		2014	핀테크	2,250	0	선전
9	vivo		2010	전자제품	2,200	680	둥관
10	미호요(Mihoyo)		2011	게임	2,000	340	상하이

*자료 : 후룬연구원

〈중국 유니콘 기업 업종별 분포〉

순위	업종	비중(%)	대표기업
1	반도체	13.0	창신테크놀로지(CXMT), 장강메모리(YMTC), 유니SOC(UNISOC)
2	인공지능(AI)	12.0	딥시크(DeepSeek), 문샷AI(Moonshot AI), 인왕인텔리전트(引望智能)
3	생명과학	9.4	위닥터(WeDoctor), 수쿤(SHUKUN), 유나이티드 이미징(United Imaging)
4	신에너지	9.2	인비전(Envision), 신왕다(Sunwoda), 정타이안닝(正泰安能)
5	로봇	8.4	DJI, 유니트리(Unitree), 갈봇(Galbot)

*자료 : 후룬연구원

자료원 : 환구망

2 中, '로봇 수출'이 대외무역의 新성장 동력으로 부상

- 2025년 중국은 산업용 로봇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전환, 특히 상하이시 해관에 따르면 1~5월 로봇 수출액은 83억 6,000만 위안(한화 약 2조 원)으로 전국 로봇 수출의 42.5%를 차지
- **(청소용 로봇)** 청소용 로봇 수출은 61억 1,000만 위안(약 1.4조 원)으로 전체 로봇 수출의 71.6%를 차지하였고, 1월 1일부터 세번(HS Code 8508.1110, 8508.1910)을 적용
 - 올해 에코백스(Ecovacs)의 수출 주문은 전년 동기대비 50% 이상 증가하였고, 킨온로보틱스(擎朗智能)는 글로벌 출하량 기준 22.7%의 시장점유율로 상업용 서비스 로봇 시장 1위를 달성
-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은 수출액과 수출단가가 동반 상승세로, 산업용 로봇 수출액은 39.5% 증가한 21억 3,000만 위안(약 4,878억 원), 대당 평균 수출단가는 지난해 동기의 6만 2,000위안(약 1,420만 원)에서 8만 6,000위안(약 1,970만 원)으로 상승했음
 - 자카로보틱스(JAKA)는 협동로봇과 임바디드 AI 로봇을 100여 개 국가(지역)에 수출 중이며, 제조업 이전에 따른 자동화 설비 투자 확대로 아태지역에서의 수요가 크게 증가함
 - *협동로봇(Collaborative Robot) : 사람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도록 설계된 안전 중심의 로봇
 - *임바디드 AI 로봇(Embodied AI Robot) : 물리적 몸체를 가진 인공지능이 센서로 실제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거나 물체를 조작하는 로봇
 - 독일 산업용 로봇기업 쿠카(KUKA) 중국지사의 2025년 해외 수주액은 20억 위안(약 4,580억 원)을 기록했고, 모바일 로봇의 해외 매출 비중은 63%에 달했으며, 스위스 산업용 로봇기업 ABB가 2022년 상하이에 설립한 슈퍼팩토리는 현재 ABB의 글로벌 3대 생산기지 중 하나로 성장
- **(지능형 바이오닉 로봇)** 휴머노이드·4족 보행 로봇 위주의 지능형 바이오닉 로봇 수출은 1억 2,000만 위안(약 275억 원)이며, 1월 1일부터 세번(HS Code 8479.8970)을 적용
 - *지능형 바이오닉 로봇 : 생체모방 구조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외부 환경을 인식·판단하며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로봇
 - 유니트리의 5월 말까지 전국 해관을 통한 로봇 수출은 2억 위안(약 458억 원)에 달했고, 말레이시아 국가사회보장기구 재활센터는 6월부터 푸리에의 GR-3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하였음
 - 해외 로봇 임대료도 높은 수준으로 독일 등 유럽 지역에서 링시(灵犀) X2 로봇의 일일 임대료는 2,000~3,000유로(약 354~530만 원), 북미 지역에서 고성능 로봇의 일일 임대료는 6,000달러(약 932만 원)에 달함

자료원 : 상하이증권보

3 1~5월 외자이용액 8.6% 감소...외자유치 강화조치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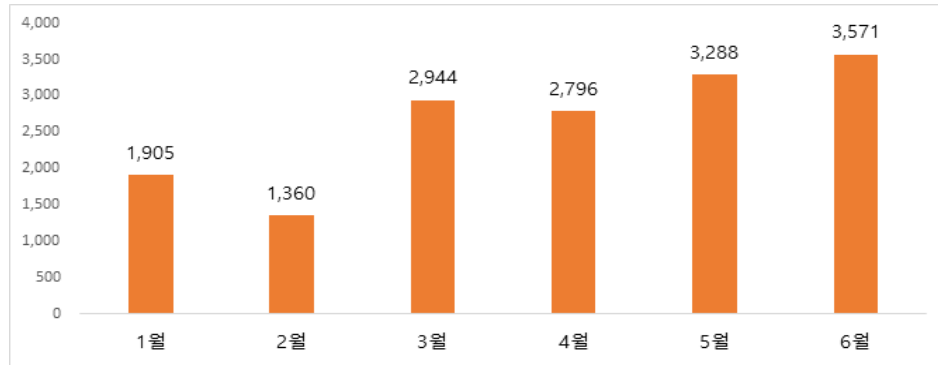
- 상무부에 따르면 1~5월 중국의 외자이용액은 전년 동기대비 8.6% 감소한 3,273억 위안(한화 약 75조 원), 그러나 신규 등록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5.3% 증가한 2만 5,297개 사로 집계
- 제조업, 서비스업의 외자이용액은 각각 870억 위안(약 20조 원), 2,342억 위안(약 54조 원)임
- 첨단산업의 외자이용액은 19.4% 증가한 1,301억 위안(약 30조 원), 이 중 연구개발·디자인 서비스, 컴퓨터·사무용설비 제조업, 전자·통신설비 제조업의 외자이용액은 각각 96.2%, 29.7%, 18.2% 증가
- *첨단산업(高技术产业) :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첨단제조업과 첨단서비스업을 지칭 ①첨단제조업 : 의약품, 우주항공 설비, 전자·통신설비, 컴퓨터·사무용설비, 의료기기·계측기, 정보화학품(감광재료·전자반도체 소재 등) 제조업, ②첨단서비스업 : 정보, 전자상거래, 검사·검측, 전문기술, 연구개발·디자인, 과학기술 성과전환, 지적권 등 서비스
- 지역별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스위스, 미국의 對중국 투자는 각 285.5%, 108.6%, 49.4%, 17.3% 대폭 증가
- 최근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 부처는 '외자 안정 및 질적 제고 행동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향후 시장 진입 확대, 투자 편의성 제고, 투자 유치 강화, 외자기업 서비스 보장, 외자 관리 최적화 등 5대 분야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힘 (2026년 6월 22일)
- 특히 금융·교육·의약 분야 개방을 확대하고 외자기업의 인수합병 규정을 개정하며, 데이터 국경간 이동 관리를 개선하고 외자기업 연구개발센터 지원 정책을 완비할 예정. 또한 '투자 중국'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디지털 투자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며 정부조달·입찰 관련 공정경쟁 심사를 강화
- *투자 중국(投资中国) : 상무부가 기획·추진하는 국가 투자유치 브랜드로 중국의 지속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 제도형 개방 확대, 신질적 생산력 발전을 위한 정책과 성과를 국내외에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한편 외자기업의 소비재 이구환신(以旧换新), 출국 시 부가가치세 환급 등 소비 촉진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국가급 전시회(수입박람회·서비스무역교역회·투자무역박람회·소비재박람회 등) 활용과 국제소비중심도시 건설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
- *국제소비중심도시(国际消费中心城市) : 소비자원과 글로벌 브랜드가 집적되어 소비를 선도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를 의미. 2021년 국무원은 상하이시, 베이징시, 광저우시, 톈진시, 충칭시를 시범 육성도시로 선정
- 2025년 기준 중국 내 외자기업은 총 53만 3,000개 사, 누적 투자액은 4조 달러(약 6,196조 원)를 넘어섬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4 100대 부동산 기업 매출 1.5조 위안 이상 달성

- 부동산 연구기관 중국지수(中指)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100대 부동산 기업의 매출은 1조 5,864억 위안(한화 약 363조 원)을 기록

〈중국 100대 부동산 기업의 2026년 1~6월 매출 추이〉



*자료 : 중국지수연구원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1선 도시의 주택가격 진정세, 토지 공급 및 신규 착공 감소로 인한 핵심 도시 주택시장의 수급 균형, 우량 주택(好房子) 공급 증가 등이 부동산 기업 매출 증가를 견인
 - *우량 주택(好房子) : 안전성·쾌적성·친환경성·스마트화 특징의 고품질 주택을 의미. 2025년 정부업무보고에 포함, 같은 해 8월 국무원은 우량 주택 건설 추진을 제시
- 바오리발전(保利发展), 중하이부동산(中海地产), 화룬부동산(华润置地)은 각각 1,351억 위안(약 30.9조 원), 1,344억 위안(약 30.8조 원), 1,165억 위안(약 26.6조 원)의 매출로 1~3위를 달성
- 중하이부동산, 중국진마오(金茂)그룹 등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10%에 달했고 베이징청젠(城建) 그룹 등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20%를 상회
- 부동산 기업의 매출은 핵심 도시에 집중되는 추세이며, 최근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핵심 도시에 대한 부동산 투자 확대는 주택 공급 증가로 이어져 주택 판매 실적 개선을 견인함
 - 상반기 주요 부동산 기업 20개 사의 1선, 2선, 3선 도시의 매출 비중은 각각 45.5%, 44.6%, 9.8%로, 1선 도시 비중은 5.8%p 상승한 반면 2선, 3선 도시는 각각 3.2%p, 2.6%p 하락함
- 올해 하반기에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우량 주택(好房子)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공적금 대출 지원 등 부동산 지원 정책 시행에 힘입어 1선 도시, 핵심 2선 도시의 시장 활력이 유지될 전망
 - 또한 중고주택 거래는 신규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핵심 도시의 주택가격 하락폭도 점차 개선될 전망